

# 조국魂을 지키며 종자개량에 몰두

민족을 지킨 육종학자

우 장 춘 박 사

박 성 래 <한국외대교수/과학사>

## 세계에 떨친 과학인들

우리 역사에서 가장 대표적인 근대과학자로는 누구를 꼽는 것이 좋을까? 근대적이라는 설명을 붙여 생각하자면, 당연히 19세기까지의 인물로는 해당하는 사람이 없다. 나라가 망한 1910년까지 이 땅에는 과학을 제대로 공부한 인물이 한 명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결국 일제시대의 과학자를 생각할 수 밖에 없음을 발견한다. 그런데 일제시대에 과학을 공부한 조선의 청년들은 거의 일본에 유학해서 학업을 이룬 경우일 뿐 이땅에서 과학을 공부할 기회가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노라면 결국 우리나라의 첫 근대과학자로는 일본에서 공부하고 귀국한 몇 명의 과학교사들, 그리고 일본에서 그대로 활약한 몇 명, 그리고 미국에서 공부한 두어 명을 들 수 있을 따름이다. 그 가운데 비교적 지금 우리들에게 이름이 알려진 과학자로는 송도중학교 교사로 「나비박사」라는 애칭을 얻은 석주명(石宙明, 1908~1950)과 흔히 「씨 없는 수박」의 발명자로 잘못 알려진 육종학자(育種學者) 우장춘(禹長春, 1898~1959)을 들 수 있다.

## 「씨 없는 수박」발명은 낭설

지난 1990년부터 문화부는 매달 역사상의 중요한 인물을 골라 「이달의 인물」로 정하고 그 인물에 대한 여러가지 기념행사를 벌이는 데, 작년에는 4월 「과학의 달」에 「이달의 문



우 장 춘 박 사

화인물」로 선정된 과학기술자가 우장춘 박사였다.

우장춘이라면 한국인 가운데에는 거의 모르는 사람이 드물 정도로 유명하다. 특히 지금의 젊은 청소년들에게는 더 널리 알려져 있다. 그렇지만 일반에게 알려져 있는 우장춘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에는 적지 않은 전설적인 내용이 많고, 그 가운데에는 그릇된 내용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우선 그는 「씨 없는 수박」을 처음 만든 세계적 과학자라고 알려져 있다. 한국인 아버지와 일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그는 일본에 살면서 온갖 고생을 다 겪고, 또 갖은 설움을 다 받으며 「사람들의 발길

에 짓밟히면서도 꾃끗하게 꽂피는 민들레꽃」을 좋아했다고도 전해진다. 그의 일본인 어머니는 우장춘에게 조국 한국에 대한 애국심을 길러준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들은 꼭 근거가 뚜렷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는 훌륭한 육종학자였고, 또 육종학이 새로운 농산물종자를 만들어내는 학문이었으니 이런 저런 새 작물을 만들어낸 것은 사실이지만 꼭 씨 없는 수박을 그가 처음 「발명」했다고는 하기 어렵다. 또 민들레와 그의 어머니의 한국에 대한 생각 등도 꼭 맞는 이야기는 아닐지도 모른다. 1990년에 일본의 전기작가 쓰노다 후사코는 우장춘에 대한 것을 조사하여 한 권의 책으로 출판했는데, 이 책에서 많은 사실이 새로 밝혀지고 있다. 또 이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일본의 TV와 한국의 KBS-TV가 공동으로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두 나라에서 방송한 일도 있다.

## 어머니는 일본여인

「민비암살」이란 책을 쓰고, 이어서 쓰노다 후사코(角田房子) 여사가 쓴 「나의 조국」이란 책에는 「우박사의 운명의 씨앗」이라는 부제가 붙여져 있는데, 1992년초에 우리나라에서 「조국은 나를 인정했다」는 제목으로 번역되어 나왔다. 우장춘에 대한 본격적인 전기가 한국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일본인 전기작가에 의해서 처음 쓰여졌다는 사실이 내게는 조금은 유감스런 느낌이었다. 사실 우장춘은 연구해 볼 소

제가 많이 있는 아주 흥미있는 대상이 아닐 수 없다. 조선인 아버지와 일본인 어머니, 개화파 군인으로서 조선에서 과연된 자객에게 살해당한 아버지, 일본인 여교사와의 결혼과 가족을 버린 고독한 귀족… 이런 모든 사건이 아직 거의 밝혀져 있지 않은 수수께끼 그것이기 때문에 그의 일생은 신비롭기까지 한 것이다.

## 부친 피살후 고아원에

우장춘은 1898년 4월 8일 일본 동경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구한국의 군인으로 일본에 망명해 있던 우범선(禹範善, 1857-1903)이었고, 어머니는 일본 여성 사끼야 나카였다. 단양(丹陽)이 본관인 우범선은 중인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한말에 새로 신식군대가 만들어지자 이에 가담하여 별기군의 참령이 되고, 1895년의 을미사변에는 훈련대의 제2대대장이 되어 사변에 가담하게 되었다. 을미사변이란 일본 군대가 1895년 10월 7일 밤 경복궁에 침입하여 8일 새벽 민비를 무참하게 살해한 사건이다. 그의 부하는 대략 200명쯤이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때마침 군대가 해산된다는 바람에 모두들 장래에 대한 깊은 불안에 떨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우범선이나 다른 한국군대가 직접 민비를 살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일본인들의 만행에 결과적으로 들러리를 서게된 것은 분명하고, 따라서 1903년 히로시마에서 우범선을 암살한 고영근은 뒤에 구한국정부로부터 포상을 받기도 했다. 우장춘의 나이 5살때였고, 그의 어머니는 31살, 암살당한 그의 아버지는 46살때의 일이다. 한창 젊은 나이에 홀로 된 그의 어머니는 이듬해 유복자 홍춘을 낳았고, 살림살이를 꾸릴 수가 없어서 열미동안 우장춘은 동경의 절에 있는 고아원에 맡겨지기도 했다. 그는 평생 자식들에게 음식을 가려먹지 말라고 가르쳤는데 『왜 아버지는 감자는 안 접수시느냐?』는 딸의 항의에 대해서는 자기는 보통 사람들이 평생 먹고도 남을 만큼의 감자를 그 고아원 시절에 먹었다고 대답했다는 일화가 전해진다.

형편이 나아지자 그의 어머니는 그를 찾아데리고 히로시마로 돌아가 세 식구는 함께 살

수가 있었고, 그는 히로시마시 밖의 구레시라는 곳에서 국민학교와 중학교를 마치게 되었다. 당시의 중학교란 물론 지금의 고등학교를 합친 것을 가리킨다. 1916년 봄 그는 동경대학의 3년제 농학실과에 입학하여 3.1운동의 해인 1919년에 졸업하게 되었다. 원래 우장춘은 공부를 아주 잘 했고, 특히 수학을 잘 해서 자신은 공과에 진학하기를 바랐지만, 당시 장학금을 주게된 총독부의 방침이 공과에 길 경우에는 장학금을 주지 못하겠다는 것이어서 어쩔 수 없이 농과로 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졸업과 함께 그가 취직한 직장은 일본 정부의 농립성 농사시험장이었다. 고원으로 들어가 이듬해 1920년 기수가 된 그는 전문적인 연구에 취미를 붙이기 시작하여, 특히 육종관계의 연구실장을 맡고 있던 테라오 히로시 박사와 함께 여러가지 연구를 할 수가 있었다. 또 생활이 안정되면서 1921년에는 스나가 고하루라는 소학교 교사와 결혼도 하게 되었다. 특히 1929년과 30년 사이에 그와 데라오박사가 함께 발표한 페튜니아와 나필꽃에 대한 육종학논문들은 그의 이름을 세계 학계에 알리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연구는 더욱 발전하여 1936년 5월에는 모교인 동경대학으로부터 농학박사의 학위를 받게 되었다.

당연히 박사학위를 받은 그에게는 연구소에서의 직위도 기사로 높아지게 마련이었다. 그러나 실제로 기사로 발령이 난지 하루만에 그의 승진은 취소되었고, 이듬해에는 아예 이 연구기관에서 떠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조선인의 성을 그대로 지키고 일본식으로 성을 고치지 않았던 것이 이유였다고 전해진다. 그는 물론 그의 이름(우장춘)을 일본식으로 읽어 「나가 하루 우」라는 영어이름으로 그의 논문을 발표했다. 또 그의 아버지는 다른 개화파인사들이나 마찬가지로 일본에서 있는 동안 일본식 이름을 지어 사용했다.

그의 아버지 우범선이 일본에서 쓴 일본식 이름은 기타노 이빼이였다. 그와 가까웠던 박영효는 야마사끼 나가하루이었고, 개화파의 또 한 지도자 김옥균은 이와따 슈사쿠이었다. 물론 이들의 일본식이름은 일본에서 비공식으로 쓰는 것이었을 뿐이었기 때문에 다른 경우이기

는 했지만, 우장춘이 성을 우씨로 고집한 것은 그나름의 조국에 대한 사랑의 표시였음이 분명하다. 그 대신 그는 2남4녀의 자식들에게는 어머니의 성을 따르게 해 주었다. 하기는 같은 부모를 가진 그의 남동생은 전혀 다른 일본인 성을 얻어 살고 있기도 하지만…

## 50년귀국 조국서 봉사

1937년이래 다끼이연구농장의 책임자로 일하던 우장춘은 1945년 일본의 패망과 함께 교오또의 호지에서 농장을 경영하고 있었다. 해방은 되었지만 과학기술자라고는 열 손가락에도 꼽을 수 없었던 당시의 한국에서 그를 초청하여 노력했음은 물론이다. 1950년 3월 귀국한 그는 농업과학연구소장, 원예기술원장, 원예시험장 등을 맡아 이 땅에 육종학의 씨를 뿌리다가 1959년 8월 10일 새벽 3시 10분 서울의 중앙의료원에서 위궤양과 복막염 등으로 입원한지 3개월만에 영면했다.

수원시 서둔동에 있는 그의 묘비에는 노산이운상이 쓴 다음과 같은 구절이 쓰여 있다. 『불우와 고민속에 진리를 토포내어 종지합성 새 학설을 세계에 외칠 적에 잠자던 학문의 바다 물결 한번 치리라 /온갓 소체종자 우리 힘으로 길러 내어 겨례를 위하시니 그 공도 얼마 던고 빛나는 문화포장을 웃고 받고 가니라/ 흙에서 살던 인생 흙으로 돌아 가니 그 정신 뿌리되어 쟁트고 가지뻗어 이 나라 과학의 동산에 백화만발하리라』

구한국의 역적의 아들로, 게다가 일본인 어머니에게서 태어났던 우장춘에게는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개인적 고뇌가 있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가 자식들에게는 일본식 성을 주면서 자신은 한국이름을 고집한 것, 그리고 52살의 나이에 편안한 일본생활을 포기하고 고난의 한국 행을 결심한 것등은 반세기 전의 설정으로는 대단한 집념이 아닐 수 없다. 우장춘은 세계적인 학자는 아닐지 모르지만, 1950년대의 한국인 농학도들에게는 어느 다른 세계적 학자이상으로 「세계적」지도자였음이 분명하다. 그리고 그는 과학자로서 보다도, 조국을 찾아 일생을 고민하다 간 민족주의 시대의 고독한 지성이었다.